

정치평론가 이율곡

최진홍*

I. 율곡의 문제의식

우리 학계에서 율곡(1536-1584)이 살았던 16세기는 흔히 성리학의 전성기¹⁾로 평가된다. 그런데 율곡을 통해 본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학문상으로는 성리학이 꽃을 피웠지만 정치적으로는 쇠락의 길로 치달고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 중심의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성리학자로서의 율곡이 아닌 정치평론가로서의 율곡을 조망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율곡이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당시의 시급한 정치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율곡은 성리학자라기보다는 정치평론가의 모습에 더 가깝게 여겨진다.

율곡의 관심은 용어는 폐(弊)에 있었다. 율곡의 관직생활은 전(前)시대의 권간들이 남긴 유폐(遺弊)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율곡이 주목한 것은 ‘백성[民]’이라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백성들의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1) 박종홍은 16세기를 ‘한국유학사에 있어서 진지한 철학적 사색을 한 학자들을 배출한 가장 빛나는 시대’로 평가한다. 박종홍, 『韓國思想史論攷 - 儒學篇-』(서울:서문당, 1986), 8.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민생(民生)’이었다. 율곡은 당시 처참한 민생의 원인이 바로 ‘폐법(弊法)’에 있음을 인식하고, 폐법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벌인다. 여기서 율곡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의 차원이 아닌, 백성‘이’ 편안한 ‘안민(安民)’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후 율곡의 관심은 ‘폐정(弊政)’이라는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율곡은 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를 폐정에서 찾고 있었다. 율곡은 당시 조선의 정치 현실이 지닌 수많은 문제점을 바로 ‘폐정(弊政)’이라는 말에 집약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의 정치적 삶을 살았다. 아래에서는 율곡이 폐정으로 지목하고 비판한 당시의 공론(公論)과 붕당의 문제, 그리고 당시의 대표적 인물인 선조와 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공론(公論) 비판

현대 정치학의 화두가 ‘민주주의’라면 조선조, 특히 율곡 시기 정치의 화두는 바로 ‘공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조(수정)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신료들이 선조에게 ‘(이러한 사안이) 공론 이옵니다’와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말 속에 등장하는 공론의 의미이다. 율곡에게 공론은, 일반인[國人]들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여정(輿情)으로, 모든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의 위정자들이 인식하는 공론은 바로 삼사(三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만의 결정이었다.²⁾

1. 만장일치와 피혐(避嫌)

율곡은 관직생활 초기에 이미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아래로

2) 최진홍, “법과 소통 그리고 정치 -율곡의 폐정개혁론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36집 (2009), 322.

는 백성의 감정을 전달하여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는 책임이 바로 간관(諫官)에게 있”다고 하여 간관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위와 아래의 진정한 소통에 있음을 밝힌다.³⁾ 율곡이 강조한 간관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감정(輿情)을 조정에 전달하는 소통의 측면에 있었다.

그런데 당시 삼사에서는 이 백성들의 감정[民情]은 방치한 채, 도덕의 문제만을 논하고 있었다. 도덕의 문제는 당연히 옳고 그름이라는 시비(是非)의 차원에 그 논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비의 논쟁에서 타협과 중재는 설 자리를 박탈당했고, 오직 만장일치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만장일치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삼사의 관원들은 모두 자리를 사퇴하였다. 이를 피혐(避嫌)이라 하였는데,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함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사소한 일로도 피혐을 하고, 서로 용납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어지럽게 바꾸어 일을 폐기하는 습성”만을 생산하였다.⁴⁾ 율곡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공론의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 7년 3월에 발생하였던 경상도 군적 경차관(軍籍敬差官)⁵⁾ 정이주(鄭以周) 면직사건은 이러한 특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정이주는 재물의 수탈에만 힘쓰고 백성의 어려움은 돌보지 않았다. 한정(閑丁)을 책출(責出)하면서 태형(笞刑)을 매우 혹독하게 가한데다, 무뢰배인 서제(庶弟)를 자기의 이목(耳目)으로 삼아 백성의 비방이 도처에 가득하였다. 따라

3) 『栗谷全書』, 「辭正言疏」, 3-9ㄱ, 上格宸衷 下達輿情 釐補穿弊 責在諫官 이하 『栗谷全書』 인용은 『栗谷全書』는 생략하고 편명만 밝힌다. 한편 여기서 3-9ㄱ 이란 『栗谷全書』 권3, 9면의 오른쪽을 가리킨다.

4) 「玉堂論遞兩司筭」, 5-10ㄴ, 微小避嫌及不相容等事, 一切勿論, 以革紛更廢事之習

5) 경차관이란 국왕으로부터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고서 지방에 파견되었던 奉命使臣을 말한다. 조선시대 경차관제도에 대해서는 李章雨, 『朝鮮初期 田稅制度와 國家財政』(서울: 일조각, 1998), 제3편 제2장 참조.

서 사헌부에서 정이주의 교체를 논의하게에 이르렀다. 집의 정지연(鄭芝衍)은 “사명(使命)을 받은 신하를 떠도는 말로 인하여 논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대사헌 심의겸(沈義謙)은 “이는 떠도는 말이 아니니, 만약 파직시키지 않으면 백성의 원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의논이 합치되지 않자, 결국 두 사람은 피형을 하였다.⁶⁾ 이 일은 율곡에게 “대간이 대단치 않은 일로 으레 서로 용납하지 않는 폐단”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시정하고자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사람의 소견이 서로 다를 경우 사정(邪正)과 흑백이 분명하다면 서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만약 하나의 의논이 합치되지 않은 것이라면 어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서야 되겠습니까. 조종조에서는 대간이 각기 자신들의 뜻으로 아뢰면서 의리의 소재만 볼 뿐 동료의 논의와 서로 어긋난 것을 꺼리지 않았으니, 부화뇌동하여 구차하게 서로 뜻을 합치려 하는 것이야말로 말세의 풍조라 하겠습니다. 정이주가 경망스럽고 각박하게 처리한 잘못과 그 서제가 뇌물을 받은 실상은 떠도는 말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온 고을 내가 시끄러워 마치 병란(兵亂)을 만난 것 같으니, 만약 이주를 파직하지 않으면 영남 천리의 인심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심의겸이 논핵(論劾)하려고 한 것은 단연코 잘못이 없고, 정지연은 그 소견에 일리가 있는 듯하긴 하나 파직하자는 의견보다 분명하고 바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의논이 합치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사정(邪正)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⁷⁾

그러나 선조는 “의논이 각기 달라서 형세 상 서로 용납될 수 없는데 억지로 서로 용납시킨다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율곡의 건의를 거부한다. 결국 정지연은 체직되었다. 율곡은 만장일치를 고집하는 대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칠 목적으로 이처럼 논했던 것인데, 선조는 규례의 변경을 경솔히 논의

6) 『선조수정실록』, 선조 7년 3월 1일.

7) 『선조수정실록』, 선조 7년 3월 1일.

한다고 하여 따르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는 “대간이 앞을 다투어 하찮은 일로 피험하여 체직됨으로써 어지럽게 자주 교체되었는데, 1년 동안에 수십 번 대간으로 들어간 자도 있었다”. 그래서 사관은 이 일을 두고, “수십 일 동안 재직하게 되면 서로 장난삼아 묻기를 ‘이미 충분히 임기를 채웠는데 어찌하여 잉임(仍任)하는가.’ 하였으니, 관법(官法)의 문란함이 극도에 이르렀다 하겠다”라고 평가하였다.⁸⁾

2. 론(論)과 의(議) : 시비(是非)와 우열(優劣)의 문제

윤곡이 공론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잘못된 공론인식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즉 언로를 독점하고 만장일치만을 지향하는 당시 삼사의 잘못된 풍토와, 여기서 발생한 피험이라는 관례가 가져온 폐해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론(論)’과 ‘의(議)’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론’이란 결론에 가까운 의미가 되며, ‘의’는 과정에 가까운 의미를 보인다. 당연히 ‘론’은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론’을 강조하다보면 ‘시비’의 문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의’는 여럿이 함께 구체적인 사안들을 따져보자는 의미가 있다. ‘논’은 혼자서 하는 것이고, ‘의’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조 정치에서는 ‘의’가 사라져버렸다. 조선의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議政府)는 ‘의정(議政)’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 결과 의가 사라진 자리를 논만이 무성하게 채우고 있었다. 삼사가 주도한 ‘의(議)없는 논(論)’은 마침내 ‘옳고 그름[是非]’만을 논하게 되었다. 권간(權姦)은 의와 논 자체를 무시했고, 유속(流俗)은 의와 논 자체를 회피하였다. 폐법은 이러한 권간의 결과이고, 폐정은 이러한 유속의 결과물이다.⁹⁾

8) 『선조수정실록』, 선조 7년 3월 1일.

9) 논(論)없는 의(議)는 폐정의 원인이 되었고, 의(議)없는 논(論)은 폐법의 원인이 되었다고

소통의 핵심은 논의 우월성으로부터 의의 우선성을 지키려는 인간의 정치적 노력이다. 시의(時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의(議)이다. 그리고 그 의(議)의 결과로 나온 대책이 바로 논(論)이 된다. 그런데 논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은 흔히 이 점을 망각하거나 간과하곤 한다.

율곡이 말하는 정치란 ‘정(政)을 행함으로써 치(治)를 이룩하는 것’으로, ‘정(政)’은 현실세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반면, ‘치(治)’는 그 행위가 바람직한 상태로 나타난 결과를 가리킨다.¹⁰⁾ 율곡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금이 신하에게 맡기는 것은 천지의 도입니다만, 맡기는 것에 사(邪)와 정(正)이 있어서 치란안위(治亂安危)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따므로 군자에게 맡기면 정사가 다스려져서 태평하고, 소인에게 맡기면 정사가 천단되어 위태하며, 군자든 소인이든 맡기지 않으면 정사가 흩어져 어지럽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¹¹⁾

율곡은 여기서 ‘정(政)’이 그 실행[行政 또는 爲政] 여부에 따라 ‘정치(政治),’ ‘정천(政擅),’ 그리고 ‘정산(政散)’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결과로 나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결과는 현실에서는 다시 ‘안(安), 위(危), 난(亂)’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 율곡에게 정치란 ‘위험과 혼란이 아닌 편안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천단[政擅]되거나, 사라지지[政散] 않고 제대로 다스려진[政治]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율곡이 생각하는 정치에 있어서의 논의는 결과론적 논의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논의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의 과정은 생략한 채, 판단의 결론만을 공유한 것이 바로 조선조의 공론정치

필자는 판단한다.

10) 최진홍, 앞의 논문, 328-329.

11) 「陳時弊疏」 7-32 ㄱ, 人君任臣 天地之道也 顧所任有邪正 而治亂安危係焉 是故 任君子則政治而安 任小人則政擅而危 君子小人 都無所任 則政散而亂 此必然之勢也

였다.¹²⁾

윤곡은 시비와 선악보다 우열을 중시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삼사의 공론정치라는 화두가 지배적 담론 구조를 이루면서 정치의 다양한 이해득실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시비와 선악이라는 원칙론만이 횡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회의 기관인 의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정치가 실종되었던 것이다. 정치의 장에서 의라는 우선성이 논이라는 우월성에 종속되면서 조선조 정치는 붕당화 되었다.

III. 붕당비판

1. 붕당의 발생

일반적으로 조선의 붕당 연구는 그 접근법과 인용사료에 따라 각기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인 평가를 제공한다.¹³⁾ 비록 붕당의 영향에 대해 양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할지라도, 조선의 붕당정치와 그 폐해의 궁극적인 원인은 군신간 또는 당파간 소통의 단절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쟁은 ‘사류정치의 말폐’, 즉 ‘유학의 정치화’일 수 있다.¹⁴⁾

12) 한편 윤곡의 이러한 사고는 가치(價値)와 가격(價格)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장에서 소통은 가격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가치의 차원으로 마무리를 해야만 한다. 우선은 그 비용과 손익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가격의 차원에서 끝맺지를 말고 가치의 문제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토론의 과정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초기에는 비용을 잘 말하게 놓아두고, 그 뒤에는 비전문가들의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야 한다. 논의의 출발을 도덕이라는 가치로 시작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도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도덕원칙에만 헌신하고 생활세계는 도외시한다면 이미 이들은 도덕이라는 상품을 파는 장사꾼이다. 윤곡의 표현에 의하면 유숙, 속유, 시배 등이 된다.

13) 윤곡 당시의 붕당연구에 대해서는 정만조, “조선시대 붕당론의 전개와 그 성격”, 『조선 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참고.

14) 성낙훈은 조선조의 정치가 당쟁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

붕당의 첫 번째 사례는 선조 8년(1575년, 乙亥年)에 이르러 발생한 을해 붕당이다.¹⁵⁾ 그 배경은 이 해 7월에 황해도 재령(載寧) 지방에 종이 주인을 죽였는데, 검시(檢屍)의 잘못으로 치사(致死)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던 사건에 기인한다. 의금부에서 국문하여 삼성 교좌(三省交坐)하는 과정에서, 박순(朴淳)이 위관(委官)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옥사를 판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대사간이면서 ‘죽은 사람과 족당’이었던 허엽(許曠)이 박순을 추고할 것을 주장했다. 허엽은 당시 사류들 중 젊은 사류들의 종주로 인식되었던 인물로, 김효원 등 중심이 되어 허엽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반면 추고당한 박순은 선배사류들의 종주로 인식되면서 허엽 중심의 정치세력들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율곡은 당시에 대사헌이어서 정치적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율곡은 우의정 노수신과 상의에서 “두 사람은 모두 사류(士類)로서 흑백·사정(邪正)을 구분할 것도 아니며, 또 참으로 틈이 생겨 서로 해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전하면서, “다만 말세의 풍속이 시끄러워 약간의 틈이 벌어진 것일 뿐인데, 근거 없는 뜬소문이 두 사람을 어지럽혀 조정이 조용하지 못하니, 마땅히 두 사람을 모두 외직(外職)으로 내보내어 근거 없는 의논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¹⁶⁾

그 결과 노수신이 선조에게 두 사람을 외직으로 보낼 것을 건의했고, 선조

에 당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당쟁이 나라를 그르친 것이라기보다도 나라의 모든 결점이 당쟁을 통하여 표현 발로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낙훈은 잘못된 정치가 붕당을 초래했다는 점과 잘못된 정치는 송대 주자학의 영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成樂熏, “韓國黨爭史,” 『韓國思想論稿』, (放隱記念事業會, 1979), 166-171. 필자는 잘못된 정치가 붕당을 초래했다는 성낙훈의 첫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송대 주자학의 영향에 관해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15) 이하의 내용은 「경연일기」, 선조 8년 7월의 기록을 정리한 것임.

16) 「經筵日記」, 29-82ㄱ, 李珣見右議政 盧守愼曰: “兩人皆士類, 非若黑白、邪正之可辨, 且非眞成嫌隙, 必欲相害也, 只是末俗囂囂, 因此少隙, 浮言交亂, 朝廷不靖, 當兩出于外, 以鎮定浮議, 大臣當於經席, 啓達其由.”

는 “한 조정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같이 공경하고 합심하여야 되는 것인데도 서로 헐뜯는다 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고 여겨 김효원을 부령부사(富寧府使)로, 심의겸을 개성유수(開城留守)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율곡의 의도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정은 김효원의 외직발령을 기회로 서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자 서인의 권력독점을 경계한 율곡은 김효원과 가까운 동인 이발(李潑)을 이조전랑으로 임용함으로써 전랑에 천거된 서인 윤두수(尹斗壽)의 조카 윤현(尹暉)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발이 체직되었고, 전일 정언으로 있으면서 양사를 체직하여 김효원의 세력꺾기를 주장했던 조원(趙瑗)이 전랑으로 임용되면서 서인들의 독주가 시작되었다. 율곡은 “조원은 쓸 만한 인재가 아”니라며, “인물을 논하지 않고 다만 김효원을 미워하는 사람만 쓰려 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경계했지만, 오히려 시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비난만 받았다.

율곡의 의도는 김효원의 기세를 약간 꺾어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효원의 기세가 한 번 꺾이자 서인은 동인을 너무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율곡은 김효원이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고 세상에 좋은 선비들을 거의 다 사귀었지만”, 그런 처신이야말로 “단지 좋은 명예를 유지하고 겸하여 세위(勢位)도 굳게 하고자”함에 있을 뿐, “보잘 것 없는 소인이 방탕하고 염치없이 이욕과 관록만을 탐내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율곡의 시각에서 볼 때 김효원은 정치과정을 왜곡시키는 소인은 아니라고 평가했던 것이다.¹⁷⁾

두 번째 사례는 무인(戊寅) 봉당이다. 이미 을해 봉당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봉당문제는 선조 11년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¹⁸⁾ 선조 8년 김효원이 외직으로 나간 뒤 사류는 동과 서로 나뉘게 되었다. 소위

17) 「答鄭季涵」, 12-11ㄱ, 大抵金某好名而喜勢, 一世善士, 相交殆盡, 觀其舉措, 只欲保持善名, 兼固勢位而已, 非若無狀小人蕩然無防, 只貪利祿也

18) 이하의 내용은 「경연일기」 선조 11년 10월의 기록을 정리한 것임.

동인에는 청명의 후진이 많고, 서인에는 다만 시배(前輩) 몇 명뿐이었으며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시망(時望)이 없었다.

이에 선비들은 동인이 성하고 서인이 쇠한 것을 알고, 또한 서인이 김효원을 내보낼 때에 거조가 적당치 못하여 공론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취적인 무리들은 모두 동인이 옳고 서인이 그르다고 하였다. 이발은 동편을 주장하고 정철은 서편을 주장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인망이 있고 나라에 봉사하는 점에 있어서는 당대 제일이라 할 수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 윤현의 숙부 윤두수와 윤근수는 모두 요직에 있으면서 서인을 지지하고 동인을 꺾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삼윤(三尹)에 대한 동인의 증오심을 심화시켰다. 윤두수의 사생활이 청근하지 못해 뇌물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 대사간 김계휘(金繼輝)에게 이를 논박하자는 제의를 하자, 김계휘는 선비들의 분열을 우려하여 거부했다. 이때까지 김계휘는 젊은 사류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으나 이 일로 인해 배척을 받게 되었다. 한편 홍문관 수찬 강서(姜緒)가 경연에서, 선비들이 동·서로 분리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선조가 비로소 ‘동·서’ 붕당의 실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조전랑 김성일이 진도군수 이수(李銖)가 윤두수 형제와 윤현에게 쌀을 뇌물로 보냈다는 말을 듣고 선조에게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발이 3윤의 집에 숨겨진 나쁜 일에 대하여 그 허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비방했다. 부제학 허엽(許曄) 등 동인은 대간이 뇌물 받은 사람을 논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간의 교체를 관철시켰다. 따라서 새로운 대간은 삼윤의 파면을 요구했고, 선조는 처음에 이를 거부했다.

이 때, 김계휘는 휴가를 얻어 지방에 있다가 대간이 삼윤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올라와 윤두수를 옹호하는 말을 아뢰었는데, 말이 과격하여 적당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이에 대해 동인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사류들이 반발하고 김계휘를 ‘나라를 망친 말’을 한 자로 공격함으로써 대사간을 김계휘에서 이산해로 교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직 동인만이 청류로 자처하고 강개함이 날로 심해졌으며, 정철과 이발의 의론도 크게 틀어져 동인은 정철을 드러내 놓고 배척하여 소인이라 지목하는 등 동·서가 다시 화합할 가망이 없었다. 율곡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조정에서는 식견이 중요하다. 식견이 없으면 현인도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지금 선비들의 싸움은 모두 일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다. 첫째는 김성일이 그 일을 발단한 것이고, 둘째는 김계휘가 선비들의 노여움을 격동시켜 놓은 것이고, 셋째는 이발이 3운 일가의 숨은 죄를 허실도 알아보지 않고 추하게 헐뜯은 것이고, 넷째는 정철과 이발이 틀어져서 동·서가 합할 가망이 영영 끊어져 버린 것이다.¹⁹⁾

2. 율곡의 봉당론

그렇다면 율곡은 봉당 간 갈등의 심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 율곡은 선조 12년에 올린 「사대사간 겸진 세척동서소(辭大司諫 兼陳 洗滌東西疏)」에서 선조에게 적극적인 해법을 제기한다. 상소의 주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봉당의 문제는 사림(士林)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사림의 문제는 당시 조선의 정치와 직결되어 있다는 율곡의 판단이다. 율곡은 당시의 “가장 절실하고 급”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로부터 국가가 믿고 유지되는 것은 사림이라 합니다. 사림은 나라의 원기라, 사림이 성하고 화합하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사림이 과격하고 분열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며, 사림이 패하여 없어진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²⁰⁾

19) 「經筵日記」, 30-23, 朝廷之上, 見識爲大。無識見則雖賢亦敗事。今者士類之鬪, 皆出於不解事。一不解事, 而金誠一發其端; 二不解事, 而金繼輝激成士類之怒; 三不解事, 而李潑列數三尹一家之惡, 不究虛實而醜詆之; 四不解事, 而鄭澈與李潑乖隔, 永絕東西相協之望。

그것은 사적인 감정대립으로부터 붕당의 형성과 갈등으로 확대된 양상이 왜 공론정치를 변질시켰는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붕당의 해결 역시 사림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율곡은 “결에서 보는 자들이 그들의 실상을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범범하게 이야기하는데다가 불령한 무리들은 두 사람 사이를 서로 이간시켜 붕당의 조짐이 현저히 드러나게 되었다”고²¹⁾ 판단했던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율곡의 초기 대응을 드러낸다. 앞에서 보았듯이 율곡은 선조 8년(乙亥)에 갈등의 원인제공자인 김효원과 심의겸 두 사람을 외직으로 보내어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나 그 후 율곡이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로 “공연히 일을 만들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자들이 동·서의 설을 지어내어 공사와 득실은 따지지 않고 단지 의견을 허여하는 자를 서인이라 하고 효원을 허여하는 자를 동인이라 하여 조정의 진신으로서 용렬한 자가 아니면 모두 동·서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²²⁾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내용은 선조에게 작금의 편가르기 식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공론에 의거하여 시대의 인재를 다 등용해야 한다는 율곡의 충고이다. 여기서 율곡은 동서의 보합이야말로 공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의 공론이 곧 ‘국시’가 된다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국시(國是)’란 무엇일까? 율곡은 국시를 “구설(口舌)로 다투어서는 정해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0) 「辭大司諫 兼陳 洗滌東西疏」, 7-2ㄴ, 今之時事, 可言者多矣, 姑先以最切而急者論之。臣聞自古國家之所恃而維持者。士林也, 士林者, 有國之元氣也, 士林盛而和則其國治, 士林激而分則其國亂, 士林敗而盡則其國亡,

21) 「辭大司諫 兼陳 洗滌東西疏」, 7-3ㄴ~4ㄱ, 於是傍觀者, 不能深究其實, 而泛說二人交惡, 加以不逞之徒, 交構兩間, 顯有分黨之漸

22) 「辭大司諫 兼陳 洗滌東西疏」, 7-4ㄱ, 於是喜事造言者, 做出東西之說, 勿論公私得失, 而只以許義謙者, 謂之西人, 以許孝元者, 謂之東人, 朝紳苟非庸碌闖茸, 則皆入東西指目之中

인심이 함께 옳다하는 것을 공론(空論)이라 하며, 공론의 소재를 국시라 합니다. 국시란 한 나라의 사람이 의논하지 아니하고도 함께 옳다 하는 것이니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며, 위엄으로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삼척동자도 그 옳은 것을 아는 것이 곧 국시입니다.²³⁾

윤곡에게 국시란 ‘민중의 감정을 따라서 안정[順輿情定國是]’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국시는 이와 달리, “주론(主論)하는 자가 스스로 옳다 생각하여도, 듣는 자가 좃기도 하고 여기기도 하며, 어리석은 지아비나 아낙네까지도 모두 반은 옳다 하고 반을 그르다 하여 마침내 귀일(歸一)”하지를 못하는, 다시 말하면 공론은 사라지고, ‘당론(黨論)’만 남은 상태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윤곡은 공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론만이 차지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당론(黨論)을 만들어 낸 이는 사류의 의사가 모두 그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박식하고 깊이 생각하는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중론에 부대끼어 자기 의사를 주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²⁴⁾

윤곡은 “먼저 피차(彼此)를 나누고 자기와 다른 것을 찾아내면 취사(取捨)가 공정하지 못하고 인심이 복종하지 않아서, 장차 청론을 세우고 국시를 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한결같이 동인만 주장하고 오직 서인만 배척하면 이 또한 편견이지 공론은 못”²⁵⁾됨을 비판하고 있다.

23) 「辭大司諫 兼陳 洗滌東西疏」, 7-7ㄴ, 況國是之定, 尤不可以口舌爭也。人心之所同然者謂之公論 公論之所在 謂之國是 國是者 一國之人 不謀而同是者也 非誘以利 非怵以威 而三尺童子 亦知其是者 此乃國是也

24) 「辭大司諫 兼陳 洗滌東西疏」, 7-8ㄱ, 作此論者, 非士類之意盡然也, 其間非無深識遠慮之士, 而迫於衆議 不能自主張焉

25) 「辭大司諫疏」, 7-23ㄴ, …24ㄴ, 先分彼此, 物色異己, 則取捨不公, 人心不服, 將無以立清論而定國是 … 是亦偏見而非公論也

여기서 율곡은 공론과 국시의 정립에 있어서 임금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조정에 편안하고 국론이 하나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군자가 임금의 신임을 얻어, 간하면 행하고 말하면 들어주며 모든 관료가 봉직하여 이론(異論)이 없으면 이것은 선(善)으로 통일되는 것이요, 소인이 임금의 사랑을 받아 계략이 행해지고 마침내 중론을 막아서 대중이 말을 못하고 눈짓만 하게 되면 이것은 불선으로 통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명(聖明)께서 마치 해가 중천에 있는 것과 같으니 소인이 간사한 꾀를 부릴 수가 없으나, 또 한편 군자가 도를 행한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이 이미 간사한 꾀를 부리지 못하고 군자가 또한 도를 행하지 못하고 보면, 사람마다 시끄럽게 말을 하여 논의가 정해지지 않음은 당연한 것입니다.²⁶⁾

그렇기 때문에 공론의 소재로서 국시는 “다만 논의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옳다 하면 그 말을 듣는 자 중 어떤 사람은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기기도 하며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시비가 반으로 나뉘어져 끝내 귀일될 기약이 없고, 사람들의 의혹만 더 불러일으켜 도리어 화단(禍端)을 만들 뿐”인²⁷⁾ 시론과 구별된다.

율곡은 봉당의 발생이 우열의 문제를 시비의 문제로 인식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낸다. 율곡이 말하는 ‘시비의 문제’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군자와 소인, 모책(謀策)으로 말하면 국사(國事)를 위하는 것과 가계(家計)를 위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동·서 봉당은 우열이 조금 다른 사안, 즉 ‘의(議)의 차원’을 시비의 문제, 즉 ‘논(論)의 차원’으로 인식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26) 「辭大司諫 兼陳 洗滌東西疏」, 7-9ㄱ, 夫朝廷之靖 國論之一 亦有二道焉 君子得君 諫行言聽 百僚奉職 莫有異論 則是以善歸一者也 小人得君 謀行計遂 箝制人口 道路以目 則是以不善歸一者也 當今聖明 如日中天 固無小人售姦者矣 又不聞君子之行道者也 小人既不售姦 君子又不行道 則宜乎人各有言 囁囁不定也

27) 「辭大司諫 兼陳 洗滌東西疏」, 7-7ㄴ~8ㄱ, 只是主論者自以爲是, 而聞之者或從或違, 至於愚夫愚婦, 亦皆半是半非, 終無歸一之期,

율곡은 판단했다.

율곡은 “우열로 말하자면, 김효원이 심의점보다 우월한 것이지만, 동인이 모두 서인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기에 한 두 사람의 우열로 시비와 사정(邪正)을 정하여 국론으로 정”하려고 했던 당시의 의론은 공론(公論)이 아니라 시론(時論)일 뿐이었다.²⁸⁾ 결국 시론이 공론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진정한 의(議)의 모습 역시 실종되었다.

선조 13년(1580) 율곡은 이발에게 편지를 보내어 동서화합을 권유한다. 이 편지에서 율곡은 “근일의 논쟁으로 온 나라가 소동하는 지경이 이른 것은 김(효원)이 낮고 심(의점)이 못하다는 데 불과”한 것으로, 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임을 주지시킨다.²⁹⁾ 율곡에게 심의점과 김효원의 문제는 단지 두 사람 간의 우열의 문제일 뿐이었다.

따라서 율곡은 “우열과 시비는 다르니 오늘의 일은 마땅히 우열로 논할 것이지 시비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³⁰⁾하면서, “동이 옳고 서가 그르다고 하기에 인심이 불평하여 의론이 끝내 귀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발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였다.³¹⁾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편지에서 율곡이 이발의 모호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율곡은 “만약 배척을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분명하게 그 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이발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은 배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³²⁾ 그것은 심의점을 비판하는 이발의 태도가 편향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28) 「答成浩原」, 11-10ㄴ, 今若以優劣言之, 金固優於沈矣。雖然, 其所謂東人者, 豈盡優於西人乎? … 豈可以一二人之優劣, 便定是非邪正, 斷爲國論乎?

29) 「答李潑」, 12-26ㄴ, 大抵近日士夫之所爭, 至於舉國騷動, 而極其要歸, 則不過金優沈劣而已。… 何待多費辭說乎?

30) 「答李潑」, 12-28ㄴ, 優劣與是非不同。今日之事, 當以優劣言, 不當以是非辨也,

31) 「答李潑」, 12-26ㄴ, 惟曰東是西非, 故人心不平, 而議論終未歸一也, 何以言之?

32) 「答李潑」, 12-30ㄴ, 若欲排斥, 則亦當明正其罪, 何故口談和平, 而心主排斥乎?

이와 같은 심의점에 대한 율곡과 이발(李潑)의 시각 차이는 율곡이 이발에게 지적한 다음과 같은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형[李潑]의 의론은 그 마음을 의론함이고 나의 의론은 그 자취를 의론함이네. 사람을 보는 것은 마땅히 그 마음으로써 하고, 상벌을 내리는 것은 마땅히 그 자취로써 해야 하는 것이니, 만약 그 자취를 논하지 않고 다만 마음으로써 상과 벌을 주면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하네.³³⁾

결국 “시비가 어찌 고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율곡의 지적³⁴⁾은 당시 시론을 공론화하는 풍토를 비판하는 기준인 동시에 봉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율곡 자신의 대안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율곡의 제안은 선조에 의해 거부되었고 율곡의 체직으로 좌절되었다.

IV. 정치가 비판

1. 선조 비판

율곡은 「진 성학집요 차(進 聖學輯要 笱)」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내용은 바로 임금의 ① 학문하는 본말(本末) ② 정치하는 선후(先後) ③ 덕을 밝히는 실효(實效) ④ 백성을 새롭게 하는 실적(實跡) 등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³⁵⁾ 그런데 덕을 밝히는 실효는 학문의 결과이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실적은 정치의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네 가지는 결국 임금의 학문과 정치라는 두

33) 「答李潑」, 12-32ㄴ, 第兄之議 議其心也, 鄙人之論, 論其迹也。觀人當以其心, 賞罰當以其迹, 若不論其迹, 只賞罰之以心, 則人心不可服也。

34) 「答成浩原」, 11-10ㄴ, 是非何常之有?

35) 최진홍, “율곡(栗谷)의 위정론(爲政論) - 퇴계의 치본론(治本論)과 비교하여-”, 『동양정치사상사』 제8권 2호, (2009) 64-66.

가지를 풀어서 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앞의 두 가지, 즉 ‘학문상의 본말’과 ‘정치상의 선후’ 문제가 더욱 중요하므로 율곡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절실하며,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미루어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기질을 변화하는 데는 마땅히 병을 살펴 약을 쓰는 것으로 공(功)을 삼아야 하고, 어진 이를 쓰는 것은 마땅히 상하가 틈이 없는 것으로 실재를 삼아야 합니다.³⁶⁾

여기서 율곡은 임금의 기질(氣質)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왕지학의 근본이라고 보았고, 인재 등용이라는 인사문제가 제왕지치의 최우선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기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마땅할 것이다. 율곡에 의하면 기질은 ‘기(氣)’와 ‘질(質)’을 합하여 이룬 것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그의 이기론(理氣論),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등의 논의들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율곡의 이기론 등의 성리학설은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도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치적 삶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를 논하는 것은 아니었다.

율곡이 주문한 도량을 넓히고 사사로움을 버린다는 점은 선조와 신하들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 임금과 신하 간에 ‘정성스러운 믿음[誠信]’이 서로 부합하지 못하여, 신하의 마음이 임금에게 달하지 못하고[下情有所不達], 임금의 뜻을 신하가 깨닫지 못하는[上意有所未曉] 당시 상황에서는 신하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지극한 다스림[至治]을 이룩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공(事功)을 이룬 사례는

36) 「聖學輯要」, 19-3ㄴ, 帝王之學 莫切於變化氣質 帝王之治 莫先於推誠用賢 變化氣質 當以察病加藥爲功 推誠用賢 當以上下無間爲實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에, 임금과 신하간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선조가 도량을 넓히고 사사로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율곡은 주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통의 자리를 소외(疎外)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율곡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후세의 임금은] 신하들을 소외(疎外)해서 착한 줄을 알고도 등용할 뜻을 보이지 않고, 악한 것을 보고도 추방하는 명을 내리지 않고, 스스로 이르기를, 중요한 비밀을 여러 신하들이 감히 엿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체통을 얻은 것이라 하니, [...] 사(邪)와 정(正)이 섞이고, 시(是)와 비(非)가 모호하게 되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³⁷⁾

율곡은 이와 같은 임금이 신하들을 소외하는 행위가 바로 선조의 모습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하께서는 착한 것을 좋아함이 지극하시지만 선비들이 꼭 옳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시며, 악한 것을 미워하심이 깊지마는 또 비부(鄙夫)가 꼭 그른 것은 아니라고 의심하시기 때문에, 곧은 선비와 간사한 소인이 같이 교격(矯激: 바로 잡음)의 이름을 얻어 어진 이가 능히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아첨하는 이와 노성한 이가 같이 순후(淳厚)의 일컬음을 얻[게 되고] [...] 게다가 어진 이와는 접견하는 일이 드물어, 정의(情意)의 막혀서 정령(政令)이 천심에 합함을 보지 못하고 출척(黜陟)하는 것이 나라 사람의 뜻에 인함을 보지 못하게 되며 [...] 이 때문에 착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어진 이를 등용하는 실상이 없고, 악한 이를 미워하면서도 간사한 이를 제거하는 유익함이 없어서 의논은 갈래가 많고 시비는 일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³⁸⁾

37) 「聖學輯要」, 19-5ㄴ, 疎外臣鄰 知其善而不示嚮用之意 見其惡而不下屏黜之命 自以爲樞機之密 羣下莫敢窺測 眞得人君之體 … 邪正雜糅 是非糶糊 國不可爲矣

38) 「聖學輯要」, 23-5ㄴ~6ㄱ, 殿下好善非不至 而又疑士類之未必眞是 嫉惡非不深 而又疑鄙夫之未必眞非 故直士與色厲者 同得矯激之名 而賢者不能盡其忠 諛佞與老成者 同得淳厚

마지막으로 율곡은 이 책을 통해서 선조가 ‘기질을 변화하는 공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어진 이를 등용하는 실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점을 진언한다. 결국 율곡이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선조에게 바친 목적은 바로 선조의 기질을 변화시켜서 임금과 신하들 간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율곡이 선조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위하여 제기한 것은 바로 임금의 ‘마음[心]’이었다. 인간은 정(情)을 닦을 수도 없으며, 성(性)을 닦을 수도 없고 오직 자신의 마음[心]만을 닦을 수 있다.³⁹⁾ 율곡은 심(心)의 작용을 크게 지

之稱 … 加之以接見稀罕 情意阻隔 政令未見合乎天心 黜陟未見因乎國人 … 是以 好善而無用賢之實 嫉惡而無去邪之益 議論多岐 是非靡定

39) 율곡은 「인심도심설」에서 성(性)을 ‘천리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 심(心)을 ‘성과 기(氣)를 합하여 일신을 주재하는 것’, 정(情)을 ‘심이 사물에 응하여 밖에 발하는 것’이라고 심·성·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율곡의 이렇게 복잡한 이론이 실제 정치와 무슨 관련이 있기에 굳이 임금에게 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율곡은 사람의 회노애락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가 회노애락을 말하는 이유는 이 회노애락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의 표현대로 하면 ‘성인이나 미치광이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회노애락을 직접 느껴 발하기도 하고, 그것이 회노애락인지 알 수도 있는 존재들이다.

율곡은 회노애락을 직접 느껴 발할 때 이를 情이라 하였고, 이것이 회노애락인지를 아는 것은 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회노애락을 느끼거나 알기 이전의 회노애락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말한 것이 바로 性이라는 점을 율곡은 ‘회노애락의 소이연의 이치는 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정(情)은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율곡은 보고 있다. 인간은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마땅히 화낼 것을 화내기도 하지만, 마땅히 기뻐하지 않을 것에 기뻐하기도 하고 화내지 않을 것을 화내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여기서 율곡은 선(善)과 불선(不善)을 말한다. 마땅히 기뻐할 것에 기뻐하는 것은 선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마땅히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에 기뻐하는 것은 불선이라는 것이다.

율곡은 선한 정은 인의예지의 실마리인 것으로 이를 맹자가 4단으로 지목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불선한 정은 ‘이미 더럽고 흐린 기에 은폐된 바 있어, 도리어 이를 침해하므로 이를 인의예지의 실마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4단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불선이 ‘성에 근거하지 않’는 또 다른 근본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율곡은 마침내 ‘선과 악은 모두 천리’이며, 이 ‘천리에 따라 인욕이 있’다고 말한다.

(志)와 의(意)로 나누고 있다. 지는 정이 이미 발했을 때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의란 그것에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지(志)란 마음이 가는 바를 이룬 것이니, 정이 이미 발하여 그 추향을 정한 것이다. 선으로도 가고 악으로도 가는 것은 모두 지이다. 의(意)란 마음에 계교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정이 이미 발하여 생각도 하고 운용도 하는 것이다. [...] 염·려·사(念·慮·思) 세 가지는 다 의(意)의 별명인데, 사는 비교적 중하고, 염과 려는 비교적 경하다.⁴⁰⁾

여기서 율곡은 인간의 노력은 바로 이 심의 작용에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意)는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정(情)은 거짓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의(誠意)라는 말은 있어도 성정(誠情)이란 말은 없다.⁴¹⁾

인간의 마음[心] 가운데 하나인 뜻[意]은 인간 스스로 닦는 것이기 때문에 율곡은 거짓으로 할 수도 있다고 위에서 말하면서 정은 거짓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은 참이든 거짓이든 인위적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율곡은 선과 악을 모두 천리이며, 이 천리로 인하여 인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인욕을 바로 천리라고 규정하면 이는 큰 오류가 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 ‘비유하면 여름철에 고기 젓이 변하여 구더기가 생기는 것과 같다. 구더기는 본래 고기 젓에서 생겼기만 그 구더기는 고기 젓을 도리어 해치는 것으로, 그 구더기를 바로 고기 젓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욕도 천리에서 나왔지만 도리어 천리를 해치는 것과 한 가지 이치이다. (譬如夏月之醢 變生蟲蛆 蟲蛆固因醢而生也 然遂以蟲蛆爲醢 則不可也 蟲蛆生於醢 而反害醢 人欲因乎天理 而反害天理 其理一也. 「聖學輯要」, 20-57 ㄱ.)

40) 「聖學輯要」, 20-59 ㄱ, 志者 心有所之之謂 情既發而定其趨向也 之善之惡 皆志也 意者 心有計較之謂也 情既發而商量運用者也 … 念 慮 思 三者 皆意之別名 而思較重 念慮較輕

41) 「聖學輯要」, 22-59 ㄱ, 意可以僞爲 情不可以僞爲 故有曰誠意 而無曰誠情

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율곡의 의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바로 율곡이 성의(誠意)라는 말을 있어도 성정(誠情)이라는 말은 없다고 한 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정이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다. 이 점을 정치의 세계와 연결시켜 보면, 민정(民情)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도출된다. 율곡은 민정(民情) 또는 여정(輿情)을 중시하였다. 그가 선조에게 폐법과 폐정을 개혁하자고 주문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민정이 모두 원하는 배[民情皆願]’였다. 위에서 말한 ‘성의라는 말을 있을 수 있어도 성정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 ‘민의를 잘못 갈 수도 있지만, 민정은 그 자체가 바로 현실 정치가 가져온 그대로의 모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율곡은 민의보다도 더 중요한 그 민정을 그대로 정치의 장에서 느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백성과 임금이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과 백성을 만나게 해 줄 매개자가 필요하다. 그 매개자 집단이 바로 신료라고 할 수 있다. 신료들이 ‘민정’을 잘 매개하면 정치의 장이 활성화된다.

하지만 이들 신료들은 이처럼 중요한 매개자의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 이유는 이들 신료들은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곡은 그 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재야의 현인을 등용할 것을 계속하여 선조에게 주문했다.

율곡이 주목한 것은 실제 정치의 담당자인 군주와 신하들 간의 소외라는 문제였다. 그리고 군신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군주가 소통 지향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소통’의 측면에서 율곡의 군도론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임금이 주도하는 하되, 독단하지는 말라’, 다시 말하면 ‘임금이 앞장을 서야만 되지만 혼자 가면 안 되고 함께 가야만 된다’는 점에 있었다.

2. 퇴계 비판

율곡은 군주의 수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지만, 군주가 수신이 될 때까지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정치가 갖는 속성임을 또한 주목하고 있었다. 여기서 율곡의 군주론은 ‘수신’을 윤리적이며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퇴계의 ‘치본론(治本論)’과 차이를 갖는다. 퇴계의 「성학십도」는 철저하게 군주의 수신만을 강조하고 있다.⁴²⁾ 그런데 이러한 퇴계의 입장이 확장되면 ‘준비론’으로 흐르게 되어 결국에는 군주의 수신이 완성될 때까지 정치는 뇌사(腦死) 상태로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⁴³⁾

이(理)와 기(氣)에 대하여 율곡은 「인심도심설」에서, ‘리와 기가 혼용되어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발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소이는 이이다. 기가 아니면 능히 발하지 못할 것이요, 이가 아니면 발하는 소이가 없을 것이니, 어찌 이발·기발의 다름이 있겠’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 동안

42) 최진홍, 앞의 논문, 54-58.

43) 율곡은 선조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선조 : “학문은 온축하여 덕행이 된 뒤에야 밖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인데 덕행이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사업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삼대의 융성한 정치도 마땅히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율곡 : “전하의 이 말씀은 진정 근본을 따르는 주장이십니다. 다만 덕행은 일조 일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는 하루라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차 정치를 방관한 채 그냥 문란한 대로 놔 두시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덕행과 사업은 동시에 서로 닦아 나가면서 같이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삼대의 치화야말로 본디 갑작스럽게 회복할 수 없겠습니까만 폐단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야 어찌 행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순의 덕을 갑자기 이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순의 마음 씀을 추구해 보고 요순의 선정(善政)니까. 본받는다면 거의 요순의 정치에 쓸 이를 수 것입니다.” 『선조실록』, 선조 2년 9월 25일 上曰: “蘊之爲德行, 然後乃可發之爲事業. 豈可無德行, 而有事業乎? 且三代之治, 亦當行之有漸, 不可猝然遽復也.” 珥 曰: “此言, 固是循本之論. 但德行非一朝可辦, 而政事不可一日廢也. 允德未成之前, 將置政事於不問, 而任其紊亂乎? 是故德行事業, 當一時交修竝進也. 且三代之治, 固不可猝復矣. 至於革弊救民, 則此豈難行之事乎? 堯、舜之德, 雖不可猝成, 但求堯、舜之用心, 法堯、舜之善政, 則庶幾堯、舜之治矣.” (밑줄은 필자의 것)

수없이 많은 율곡 연구에서 반복하여 인용되어 왔던 바이다.

그렇다면 인심과 도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율곡은 사람의 정이 발할 때 인심과 도심⁴⁴⁾으로 나뉘어 진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이 발할 때 도의를 위해 발하는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싶으며, 임금에게 효도하고 싶으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불의를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며, 종묘에 지나갈 때 공경하는 것 등이 그것으로서 이는 도심이라 하는 것이요, 정이 발할 때 구체를 위하여 발하는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입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으며, 정력이 왕성하면 여자가 생각나는 것 등이 그것으로서 이는 인심이라 하는 것입니다.⁴⁵⁾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율곡은 ‘도심을 발하는 것도 기이지만 성명이 아니면 도심이 나오지 못하고, 인심의 근원되는 것도 이이지만 형기가 아니면 인심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혹은 성명에 근원하고 혹은 형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과 사로 달라지는 까닭’⁴⁶⁾이라고 공사(公私)의 개념⁴⁷⁾을 이와 연결시키고 있다.

44) 한편 황준연은 (122) 도심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심을 배척하기만 하면 ‘도심중독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송유들이 공·맹 시대의 유학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도덕적 엄숙주의로 기울었다는 주장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율곡에게도 이와 같은 도심 중독 증세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말한다.(황준연 1995 122) 하지만 이동인은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일부 종교가와 철학자의 견해와 달리 율곡은 그것이 본원적으로 선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선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점을 지적한다.(이동인 2002 309)

45) 『聖學輯要』, 34-23 ㄴ, 情之發也 有爲道義而發者 如欲孝其親 欲忠其君 見孺子入井而惻隱 見非義而羞惡 過宗廟而恭敬之類 是也 此則謂之道心 有爲口體而發者 如飢欲食 寒欲衣 勞欲休 精盛思室之類 是也 此則謂之人心

46) 이를 『국역 율곡전서(Ⅲ)』, 307쪽. 주 21)에서는 주자의 증용(證用) (서)에 있는 ‘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天理之公 人欲之私’에서 인용한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47) 김홍우는 ‘정치세계의 특징’을 ‘사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공적 영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단은 도심, 칠정은 인심’이라는 이분법으로 인식하는데 있다는 점을 율곡은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단은 참으로 도심’이지만, 칠정은 인심만을 가리킨 것이 아님을 말한다. 즉 칠정은 인심과 도심 모두를 합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학자들은 선악이 기의 청탁에 말미암은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이론을 탐구하여도 해득하지 못하여, 이발을 가지고 선을 삼고 기발을 가지고 악을 삼아,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게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으니, 이는 밝지 못한 논설이다.⁴⁸⁾

필자는 율곡의 이러한 사고의 정치적 의미는 인간의 정치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인심도심설, 이기론 등은 인간의 정치적 실천방법에 대한 근거 제시 때문에 그가 임금에게 진언한 것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정치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준비론’이고, 둘째는 여기서 말할 ‘결정론’이다.

인심과 도심의 출발이 처음부터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인간사 모든 사안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으로 흐를 수 있다. ‘이와 기가 서로 발한다’는 퇴계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의 장에서 인간의 할 일이 없어지고 만다. 이 점을 염려한 율곡은 “사람은 도를 넓힐 수 있되, 도는 사람을 넓힐 수 없다”는 공자의 말을 이 자리에 되살려내고 있는 것이다.⁴⁹⁾

역설적인 세계’로 설명한다. (김홍우 2007 1149) 한편 율곡은 공적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임금을 생각하였다. 신하들은 태생적으로 완전한 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48) 「聖學輯要」, 34-25 ㄱ, 今之學者 不知善惡由於氣之清濁 求其說而不得 故乃以理發者爲善 氣發者爲惡 使理氣有相離之失 此是未瑩之論也

49) 이동인은 여기서 율곡이 ‘인간이 사회개혁의 능동적 주체임을 강조’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율곡에 의하면 理(道)는 무위이며 이와 기를 겸한 인간은 유위이기 때문에 공자가 말한 대로,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폐정을 혁신하는 것도 결국 사람에게 달린 일이다. (이동인 2002, 309)

육곡은 퇴계의 ‘四端은 理가 발하고 氣가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는 주장, 즉 ‘이기호발’을 주장한 것은 ‘이기에 대해 투철하게 알지 못한 때문’이라면서 ‘무릇 정이 발할 때에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소이가 없’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 말은 ‘성인[공자]이 다시 나와도 고치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육곡이 이 점을 이토록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는 정치란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육곡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이와 기가 서로 발한다고 하면 이 이와 기라는 두 物이 각각 마음속에 뿌리를 박고서, 발하기 전부터 이미 인심·도심의 苗脈이 있어, 이가 발하면 도심이 되고 기가 발하면 인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두 근본이 있는 것이니. 어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⁵⁰⁾

V. 결 어

육곡은 폐정의 한 이유로 과잉된 공론을 지목하였다. 육곡의 시기에 조선은 이미 공론이 과잉 재생산되는 문제가 유발되었다. 육곡이 공론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잘못된 공론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육곡은 당시 삼사의 언로독점과, 여기서 파생된 피협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였다. 육곡은 삼사의 공론정치라는 화두가 지배적 담론 구조를 이루면서 정치의 다양한 이해득실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시비라는 원칙론만 횡행하였음을 지적했다.

이기지묘 이통기국 등은 모두 만남을 의미한다. 분리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남이란 하나로 합쳐지는 만남은 아니다 서로 소통하는 만남일 뿐이다.

50) 「答成浩原」, 10-4ㄴ, 若來書所謂理氣互發, 則是理氣二物, 各爲根柢於方寸之中, 未發之時, 已有人心道心之苗脈, 理發則爲道心, 氣發則爲人心矣。然則吾心有二本矣, 豈不大錯乎,

손은 잡되 발까지 맞추는 것은 아니다. 즉 부부의 만남이 아니라 형제와 동료의 만남이다. 발까지 맞추려는 시도는 잘못된 공론의 문제를 낳았고, 결국은 잘못된 폐해 즉 봉당의 문제로 변질되었다.

율곡에게는 두 개의 근본이 있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지만 정치의 근본은 임금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가 선조에게 올린 「성학집요」는 정치의 근본인 임금에게 필요한 정치학 교과서였다. 「성학집요」를 통해서 살펴본 율곡의 이기론(理氣論) 등이 모두 율곡 자신의 위정관(爲政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지, 결코 관념적인 철학이론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율곡은 ‘민정(民情)’ 또는 ‘여정(輿情)’을 중시하였다. 그가 선조에게 폐법과 폐정을 개혁하자고 주문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민정이 모두 원하는 바[民情皆願]’였다. 민정이란 일반백성들이 느끼는 1차적 감정으로 인간의 가장 진실 된 모습이다. ‘민의(民意)’는 잘못 생성될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지만, ‘민정(民情)’은 그 자체가 바로 현실 정치에 대하여 느끼는 직접적 감정이다. 따라서 율곡은 민의보다도 더 중요한 그 민정을 그대로 정치의 장에서 살려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율곡의 의도는 정치의 세계에서 ‘폐’를 제거하는 것이지 ‘악’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정치의 세계를 폐가 아닌 악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이(理)로 경도되기 마련이다. 율곡이 주장한 이기묘합란 바로 정치를 선악이 아닌 폐을 문제로 바라보기 위한 율곡의 몸부림이었으며, 정치의 두 방해요소인 준비론과 결정론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즉 율곡의 이기묘합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부처가 가리킨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바라보는 격이다.

<접수일: 2009. 9. 18, 심사일: 2009. 10. 12, 게재확정일: 2009. 11. 8>

초록

정치평론가 이율곡

최진홍

본 논문은 성리학자로서의 율곡이 아닌 정치평론가로서의 율곡을 조망한다. 율곡은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당시의 시급한 정치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성리학자라기보다는 정치평론가의 모습에 더 가깝다.

율곡의 시기에 조선은 이미 공론이 과잉 재생산되는 문제가 유발되었다. 율곡은 삼사의 공론정치라는 화두가 지배적 담론 구조를 이루면서 정치의 다양한 이해득실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시비라는 원칙론만 횡행하였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율곡은 봉당의 발생이 우열의 문제를 시비의 문제로 인식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낸다. 당시 동·서 봉당은 우열이 조금 다른 사안, 즉 ‘의(議)의 차원’을 시비의 문제, 즉 ‘논(論)의 차원’으로 인식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율곡은 판단했다.

율곡에게는 두 개의 근본이 있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지만 정치의 근본은 임금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가 선조에게 올린 「성학집요」는 정치의 근본인 임금에게 필요한 정치학 교과서였다. 「성학집요」를 통해서 살펴본 율곡의 이기론(理氣論) 등이 모두 율곡 자신의 위정관(爲政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지, 결코 관념적인 철학이론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율곡의 의도는 정치의 세계에서 ‘폐’를 제거하는 것이지 ‘악’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정치의 세계를 폐가 아닌 악의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이(理)로 경도되기 마련이다. 율곡이 주장한 이기묘합란 바로 정치를 선악이 아닌 폐을 문제로 바라보기 위한 율곡의 몸부림이었으며, 정치의 두 방해요소인

준비론과 결정론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즉 율곡의 이기묘함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부처가 가리킨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바라보는 격이다.

주제어: 공론(公論), 시비(是非), 우열(優劣), 붕당(朋黨), 민정(民情), 준비론, 결정론.

Abstract

A political commentator Yi Yul-gok(李栗谷)

Choi, Jin-hong

This study focus on Yul-gok as a political commentator, not him as a xinglixue(性理學) oriented scholar.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fact that he had endeavored to cure the urgent problematics of those days, rather than set the systematical theory of xinglixu.

The problematics of Chosun(朝鮮) where Yul-gok had lived is the excessive public opinion(公論). Yul-gok had argued that public opinion on the diverse political interests and their benefit and loss had be dispersed in the political situation where the political issue of the politics oriented by political opinion made the structure of ruling narrative, with the result that the political dogma of ‘right-wrong’ debate had been prevailed. He concluded that the political conflict of both Dong(東)‘ partisan and Seo(西)’s partisan was stemmed from their awareness of ‘right-wrong’ debate as the problem of public opinion(論), not as of public agreement(議).

In his argument there are two political foundation, people as the foundation of dynasty, and king as the foundation of politics. The Seonghakjipyo(聖學輯要) sent to Seonjo(宣祖) was the text of politics absolutely needed to king as the foundation of politics. Yul-gok’s argument on yikilon(二氣論) reviewed in the Seonghakjipyo(聖學輯要) focused on his own view on ‘doing politics’(爲政), not on constituting ideal philosophical theory.

His purpose was to exclude pye(弊; political decay or distortion rooted in

the living world of people), not to exclude a vice with the philosophical meaning. If the world of politics is comprehended in the aspect not of the pye but of the vice, the political meaning of concept 'li(理)' can be misunderstood. His argument of Yikimyohap(理氣妙合) is his endeavor not only to comprehend the politics and its world not as 'good vs. vice struggle' but as pye itself, but also to overcome the theory-oriented preparedness and determinism as two significant obstacles in understanding and viewing politics, which the argument of Yikimyohap is focused indeed. However many researchers had conversly misunderstood Yul-gok's Yikimyohap. This is the same as seeing only Buddha's finger, not seeing the moon he point to.

Key concept: public opinion(公論), 'right-wrong debate'(是非論), political conflict by partisan(朋黨), Minjeong(民情, the real living-world of people), the theory-oriented preparedness(準備論), the determinism(決定論)

참고문헌

- 『栗谷全書』 1-2. 1971.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 『國譯 栗谷全書』 I-VII, 1984-198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국역 선조실록』. 1987-88. 민족문화추진회.
- 『국역 선조수정실록』. 1989. 민족문화추진회.
- 김홍우. 2007. 『한국정치의 현상학적 이해』 인간사랑.
- 박종홍. 1986. 『韓國思想史論攷 -儒學篇-』. 서문당.
- 成樂熏. 1979. 『韓國思想論稿』. 放隱記念事業會.
- 이동인. 2002. 『율곡의 사회개혁사상』. 백산서당.
- 李章雨. 1998. 『朝鮮初期 田稅制度和 國家財政』. 일조각.
- 정만조. 1992. “조선시대 봉당론의 전개와 그 성격”.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진홍. 2009. “법과 소통 그리고 정치.” 『동양고전연구』 제36집.
- 최진홍. 2009. “율곡의 위정론 -퇴계의 치본론과 비교하여-” 『동양정치사상사』 제8권 2호.
- 黃俊淵. 1995. 『율곡 철학의 이해』. 서광사.